디지털 문명이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글쓰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장론 모색해야…
간결한 문체 · 두괄식 논리전개 · 시청각적 문장배열 강조돼

고창수 | 한성대 국문과 교수

활판인쇄문명이 소설을 번성시킨 것처럼 컴퓨터 문명은 새로운 글쓰기를 촉진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문명이 요구하는 문장론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단지 글과 그림과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짧은 글쓰기 유형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될 뿐이다. 문제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대는 이미 새로운 매체로 왕성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날로그 세대들이 디지털 시대의 문장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제 펜으로 글을 쓰는 일은 전화번호를 메모하는 등의 사소한 일에만 적용된다.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는 한마디로 컴퓨터를 매개로 한 글쓰기며, 글자판을 이용한 글쓰기다. 이런 글쓰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한자는 전형적인 아날로그형 문자인데, 디지털 글쓰기의 영향으로, 펜으로 한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이 퇴보하기 때문이다. 한 획 한 획 순서를 기억하지 않아도 복잡한 한자를 순식간에 쓸 수 있는 컴퓨터 자판 때문에, 손으로 글자를 기억하는 일과 눈으로 글자를 기억하는 일이 분리된다. 컴퓨터에서 한자는 글자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이다.

그림과 글자가 어울려 이미지 만들어내

이런 일들을 확대 적용해 보면, 디지털 글쓰기는 글자와 그림이 조화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날로그 글쓰기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디지털 글쓰기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메일을 통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예다. 고대 이집트 문자들이 씌어 있는 벽면이 하나의 벽화를 구성하듯 디지털 글쓰기는 그림과 글자가 하나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글쓰기다. 그래서인지 채팅을 주로 하는 신세대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들을 문장 사이에 삽입해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도구로 삼고 있다. 글쓰기에서 그것들은 이미 하나의 단어며 문장이다.

디지털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보다 글쓰기를 많이 한다. 이메일, 채팅,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디지털 세대들은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들겨댄다. 지하철이건 강의실이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글 쓰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이 디지털이다. 그들은 쉼 없이 글을 쓴다.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을 보면서 옛 기자(記者)와 대화하듯 그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끼리 글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한다. 그러니 글쓰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활판 인쇄문명이 긴 글쓰기를 촉진하고 그로 인해 소설이라는 장르가 번성하게 된 것처럼, 컴퓨터 문명은 짧은 글쓰기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장르의 문학행위가 번성할 것이 예측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과 글과 소리가 잘 조화하는 짧은 글쓰기 유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시 종합예술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일이 한 공간에서 진행되듯,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이 연결되는 디지털 종합예술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요즘 흔히 접하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것이 확실히 디지털 종합예술의 한 축을 이미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속(斷續)적인 화면, 노래하고 춤추는 연기자와 가수, 그리고 거의 주절거리는 듯한 랩장르, 그래서 서정과 서사가 한 시공에서 표현되는 노랫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장론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간결한 문체와 두괄식 논리전개, 그리고 시청각적 문장배열이다. 파워포인트라는 문서 저작도구를 예로 들어보자. 파워포인트는 프리젠테이션 도구로서 이미 제록스와 같은 지위를 얻었다. 프리젠테이션 도구라 함은 말 그대로 보이기 위한 문서다. 읽히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데 이 도구의 특징이 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한 페이지에 길어야 열줄 정도를 채우는 것이 적당하다. 좋기로는 매 페이지가 네다섯줄의 문장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좋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워포인트는 소수 사용자들만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편화된 문서 저작도구다. 왜 파워포인트일까?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디지털 문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구기 때문이다.

두괄식 논리전개와 간결한 문체 요구돼

파워포인트로는 짧은 글쓰기만이 가능하다. 이런 문서는 보통 10페이지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니 한 페이지의 문장분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문서 전체의 문장분량도 적을 수밖에 없

다. 한 문장도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해야 한다. 그러니 명사문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파워포인트는 또 그림이나 음향도 삽입이 가능하다. 문장이나 단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할 수도 있다. 문장만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청각적 감각에 호소하는 방법을 더욱 더 찾게 된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결론에 합의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두괄식 사고에 익숙한 사람에게 적합한 저작도구다.

글쓰기만으로 모든 것을 전달하려는 아날로그 글쓰기에서는 각종 수사법이 발전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여러가지 표현법이 등장하지만, 디지털 도구에서는 일관된 문장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이 여러가지 굴절을 거치지 않고 즉자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유보다는 직설적 표현이 효과적이다. 아날로그에서 은유가 담당했던 기능은 이제 그림과 배경음이 대신한다. 은유는 표현을 극대화시키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은유들은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복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효과도 주지만, 진실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날로그 값에는 필연적으로 잡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은 잡음이 없는 정보다. 손으로 쓴 글에는 글을 쓴 사람의 성격과 글을 쓸 때의 마음 상태가 필적에 드러나지만, 디지털 글쓰기에는 이런 잡음이 없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매체를 부여받고 그들만의 왕성한 의사소통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익명의 개인들이 무제한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를 구가한다. 이에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 걸맞는 혁신적인 의사소통 예절이 필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PC방에서 채팅에 몰두하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

인터넷 글쓰기의 핵심

파워포인트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 글쓰기는 매체를 활용하는 글쓰기다. 이런 매체는 단순히 저작도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이라는 연결망도 글쓰기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대자보라는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인터넷은 충실히 이어받고 있다. 그 기능은 점점 심화돼 가고 있으며,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인터넷의 요체는 한마디로 개인과 개인이 대량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익명의 개인들이 표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다. 각 홈페이지에는 게시판 기능이 있는데, 이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에 전달한다. 이런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예절이 필요하다.

인터넷 글쓰기의 핵심은 부드럽고 예절바른 문장과 논리적 설명이다. 익명을 무기로 한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비논리적 언설로 앵무새처럼 자신의 주장을 되뇌기만 하는 게시판 글들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이는 디지털형의 '양치는 소년' 우화다. 이 우화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 거듭해서 유포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익명의 언어 유희와 폭력은 우리에게 진실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숙고하게 한다. 장터 민주주의가 진실을 담보할 수 없듯, 언어 예절 없는 인터넷은 사회의 새로운 불안을 이미 잉태하고 있다. 과연 이를 제어할 만한 힘을 아날로그 세대는 갖고 있는 것일까?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매체를 부여받고 이미 왕성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만으로 이뤄진 탐험대가 무인도에 도착해 자신들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그곳과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아날로그 세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아날로그적 글쓰기만을 강조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문장론의 모색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숙고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글쓰기에서는 문단 나누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들여쓰기는 왜 필요한가? 문장부호는 어떤 표준을 따라야 하는가? 아날로그 시대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시각효과를 중요시하는 디지털 글쓰기에는 좀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아날로그 세대도 디지털 글쓰기에 대해 좀더 책임 있는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세대는 사실 아날로그 세대가 분명한 태도로 도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이 닥쳐올 글쓰기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멀다.●